

## 산하연합회 소식

### ● 한농연전남도연합회, 박홍수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지난 6일 한농연전남도연합회는 전·현직 임원 40여명과 박홍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종규 한농연전남도연합회장은 "이번 실험상이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며 "농업통상의 실태 규명, 자주적 통상협상의 계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장관은 "이제 한농연은 이 나라 농업과 지역사회를 위한 지도자로서 스스로 책임지고 어려움을 풀어야 하는 위치까지 왔다"며 "정서적으로 발목이 잡혀 현실적 시각을 잃지 말고 긍정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박 장관은 "정부와 농업인간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상호 신뢰회복을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농지은행도입을 제도화하는 농지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농촌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 ● 8회 제주도농업경영인대회 성황리에 개최

지난 10일 제8회 제주도농업경영인대회(회장 고철희)가 황민영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장과 김태환 제주도지사, 서정의 한농연중앙회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제주도의원, 농업경영인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제주군민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강기권 남제주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개방의 급물살 속에 농업경영인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농업희생을 위한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 자리가 되자"고 제안했다. 고철희 한농연제주도연합회장도 대회사에서 "회원 간 어려울 때 도와주고 고통 받을 때 용기를 주는 농업경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정의 한농연중앙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의 이 대회가 각급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수련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오늘 대회가 그간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양우철 제주도의회의장은 "당장은 어렵지만, 제주농업과 농촌을 위해 더욱 분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황민영 농특위원장의 특강과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 간담회 등 각종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 되 눈길을 끌었다. 황민영 농특위원장은 「개방시대 농업경영인의 역할」이란 특강을 통해, "미래를 열고, 희망을 만드는 미래농정·희망농정은 국민·정부·의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지, 특정 계층이나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뿌린 대로 거두는 농업의 정도에 입각, 실현 가능한 구체적 혁신적 대안들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 농업기반공사 노조, 양양산불피해농가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

농업기반공사 노동조합(조합장 신기준) 조합원들은 지난 3일 농업기반공사 영북지사 회의실에서 강원 양양 산불피해 지역 농업인 자녀들에게 장학금 9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 조합원은 "농업 관련 기관 종사자로서 농업인들의 피해를 모른 척할 수 없었다"며 자신들의 박봉을 쪼개 십시일반 모은 돈을 전달했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달 5일 산불로 가옥이 전소되거나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피해를 본 농민의 자녀로 지역 농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14명이다. 이중 한농연 회원의 자녀는 7명 포함됐다. 이들에게는 대학생 100만원, 중고생 50만원씩 모두 8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노조 관계자는 "농업 관련 기관 종사자로서 농업인들의 불행에 함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각종 자연재해나 풍수해로 농작물이 피해를 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농가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농촌 독거노인 지원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12일, 쌀 국정조사 착수

국회는 지난 12일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실패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이행 관련 쌀협상 이면합의 의혹 등에 대한 35일간의 국정조사에 착수했다. 특위는 회의에 앞서 여야 간사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반기문 외교부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재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대사, 박홍수 농림부장관, 쌀협상 당시의 허상만 전 농림부장관 및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쌀 협상 당시 민간대표로 참여했던 김충실 경북대 교수, 서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총 21명을 증인으로, 한농연중앙연합회 손재범 정책실장 등 농민단체 관계자 4명을 참고인으로 각각 선정했다. 특위는 비밀문서 열람 문제와 관련, 국회의원들만 국회에 설치된 특정 장소에서 열람하되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 교섭단체별로 비밀취급인가 증을 가진 전문가 1명씩을 배석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이어 오는 26~27일 외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3개 부처의 기관보고를 받은 뒤 예정대로 내달 13~14일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쌀 협상 과정에서 이면합의 존재 여부 ▲중국산 과일에 대한 신속한 수입위험평가 절차 합의 의미와 국내 과수농가에 미치는 영향 ▲인도, 이집트산 쌀 11만1천210t 추가 구매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농연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쌀 협상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농정 신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통상협상 전문가들이 예비조사에 참여하여 정부의 협상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농업통상협상에서는 농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협상 전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농업 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연대 대표단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농민연대 대표단은 "국정조사가 내실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통상전문가와 농업경제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비조사가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최승환 경희대 법대교수와 송기호 변호사 등 전문가 5명의 명단을 국정조사특위에 전달했다.